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1박2일 해남 방문...명현관 군수 면담

기사입력 2020-10-22 13:48

해남 친환경쌀 중국 첫 수출 기념식 참석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2일 해남군을 방문, 명현관 군수에게 쌀 첫 수출기념의 의미를 담아 바다로 첫 출정하는 배가 새겨진 도자기를 선물했다.(해남군 제공)2020.10.22 /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해남=뉴스1) 박진규 기자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22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해남군을 방문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군에 따르면 싱하이밍 대사는 이날 해남을 찾아 명현관 군수와 환담을 갖고, 대중국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싱 대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이뤄진 명군수의 중국대사관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싱 대사의 방문을 계기로, 해남 농산물의 중국진출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을 열고,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수천년 동안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공유해온 중한 양국은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땅끝이라는 뜻 깊은 곳에서 명 군수님과 만남으로써 향후 한층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싱 대사는 유기농 해남쌀의 중국 수출 기념식 등에 참석하는 등 1박 2일간의 일정을 진행한다.

22일 열린 쌀 수출 기념식에는 싱 대사를 비롯해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총영사 등 중국대사관 관계자들과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와 중국 수출대행사인 CCIC 위카이귀 대표 등이 참석해 해남쌀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해남군은 올해 가공수출 쌀전문 재배단지에서 재배한 기능성 쌀인 '친환경 가바쌀'을 중국에 첫 수출한다.

땅끝황토친환경영농법인의 친환경 가바쌀은 국내 최초로 중국 국가 유기인증(CQC)을 받은 최고급 쌀로써 관해미(觀海米) 브랜드명으로 올해 총 3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22일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가바쌀' 중국 수출기념식을 가졌다.(해남군 제공)2020.10.22 /뉴스1

또한 싱 대사는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황조별묘를 참배하고, 해남과 중국의 오랜 인연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에는 정유재란(1597년 8월~1598년 12월) 당시 수군 도독으로 출병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을 물리친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이주 정착해 광동진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황조별묘는 진린장군의 사당으로, 중국과의 400년 우정을 상징하는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싱 대사는 1박 2일간 해남 고산윤선도유적지와 대흥사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한편, 기업도시와 오시아노 등 해남의 주요 투자유치 대상지에 대한 시찰도 실시한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비롯해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설명회를 통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해남에 대한 관심을 이끌낸다는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중국과 한국, 그리고 땅끝 해남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자리가 향후 대중국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421&aid=0004943559>
